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1967_김인기(金麟基) 지음_34.5×92.0cm



1967년 무성서원의 제기(製器)를 개수(改修)한 사실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기문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제기가 망실되었는데, 송영옥(宋榮玉)이 회사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김형기(金煥基)와 김동기(金東基)의 주관으로 제기를 개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기문은 김인기(金麟基)가 작성하였다.

武城書院祭器改修記

本院道院也文昌侯崔先生及六先生妥靈之所極爲尊奉薦裸興俯各中儀式比他院祠嚴肅有儀矣自倭僞政後其儀不振引奪祭器其後六二波亂亦爲紛失其存十亡二三尙皆殘缺頗不遂儀院儒之慚愧道內士林之嗟嘆無年無之賢靈默佑宋君榮玉慨然嗟嘆捐數萬圓巨額於是乎方圓祭器犧牲酒樽及諸屬燦然鮮潔薦裸興俯各中儀式更行先儒齊明盛服以承祭祀洋洋乎如在其上何其盛哉噫現今利慾塞官異端鳴張之日如是博施夫豈有求而爲哉蓋衛道尊賢之心篤而自知明者也斯人斯功有院以後稀有之功也不可以口說相傳故本院院儒道內士林僉議均符以楹上揭板記功之意囑余記不爲(以)不文辭敢將無說忘拙遂爲之記而主董其事者金炯基金東基君也

檀紀四千三百年丁未二月清明

節道康 金麟基記

執綱	權寧玉
掌議	金東柱
色掌	李敎冕
道內掌議	崔煥洪
本孫掌議	金淙述

本孫色掌	宋吉燮
本孫有司	金東基
道內直月	金在欽

무성서원제기개수기[武城書院祭器改修記]

무성서원(武城書院)은 도(道)를 대표하는 서원이다. 문창후(文昌侯) 최선생(崔先生 최치원(崔致遠))과 육선생(六先生)의 위패(位牌)를 모신 곳이니, 극진히 존경하고 받들어 제수(祭需)를 올리고 술을 따르고 예식을 행하는 행동이 각각 의식(儀式)에 맞아 다른 서원에 비해 엄숙하여 법식이 있었다. 그런데 거짓된 왜정(倭政) 이후로 본원(本院)의 의식(儀式)이 멀쳐지지 않았고 제기(祭器)는 약탈당했으며, 그 뒤 6·25 전쟁 때에는 보존하고 있던 것조차 분실되어 10개 중 2, 3개도 없게 된 상황이라 여전히 모두 결손되고 부족하여 의식을 제대로 치를 수 없어 서원의 유생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도내(道內)의 사람(士林)들이 탄식하지 않는 해가 없었다.

현인(賢人)의 영령(英靈)이 묵묵히 도와주시어 송영옥(宋榮玉) 군이 개연히 한탄하여 수만 원의 거액을 기부하였다. 이에 여러 제기와 희생(犧牲)과 술잔 및 여러 부속 물품들이 찬연히 정결하고, 제수를 올리고 술을 따르고 예법을 행하는 행동이 각각 의식에 맞아 선유(先儒)들의 '재계(齋戒)'하고 깨끗이 하며 의복을 성대히 하여 제사를 받들어 영령이 뚜렷하게 마치 그 위에 있는 듯함'을 다시 행하게 되었으니, 어찌 이리도 성대하단 말인가!

아! 지금 이옥(利慾)에 꼭 막혀 어둡고 이단(異端)이 기세등등한 날에 이처럼 널리 베푸니, 어찌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랬겠는가. 유학의 도를 보위(保衛)하고 현인을 높이는 마음이 독실하여 스스로 자연스럽게 분명하게 아는 자이다. 이 사람의 이 공로는 무성서원이 생긴 뒤로 드물게 있는 공로이다. 이에 입으로만 전할 수 없기에, 본원의 유생과 도내 사람들의 의견들이 일치되어 대들보 위에 현판을 걸어 공로를 기록하려는 뜻으로 나에게 기문을 부탁하였다. 내가 글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사양할 수 없어 감히 거친 글이나마 출혈함을 잊은 채 마침내 기문을 짓는다. 이 일을 주관한 사람은 김형기(金炯基)와 김동주(金東基) 군이다.

단기(檀紀) 4300년 정미년(1967) 2월 청명절(淸明節)에 도강(道康) 김인기(金麟基)는 짓다.

집강(執綱)	권영옥(權寧玉)
장의(掌議)	김동주(金東柱)
색장(色掌)	이교면(李敎堧)
도내장의(道內掌議)	최지홍(崔埤洪)

본손장의(本孫掌議)	김종술(金淙述)
본손색장(本孫色掌)	송길섭(宋吉燮)
본손유사(本孫有司)	김동기(金東基)
도내직월(道內直月)	김재흠(金在欽)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원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음시, 2020